

초라한 아버지의 자식 봉별기

-리쓰(李四)의 환갑잔치, 그리고 자식들의 도시적 삶이 목적이었던 아버지의
상식 밖의 죽음. 꾸이즈(鬼子)의 <와청 허공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과
김소진의 장편과 단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상 비교-

임계재*

<目 次>

1. 서론
2. 각 작품의 줄거리
 - 1) 리쓰의 타인 허용
 - 2) 리쓰의 왜곡된 자존심
 - 3) 이야기의 공식(리쓰와 김소진의 아버지)
3. 초라한 아버지
 - 1) 분노의 바탕
 - 2) 근엄한 독재자의 자식 찾기
 - 3) 처성자옥(妻城子獄)의 관념을 외면한 소통불능 남편과 아버지의 형상
 - 4) 소통불능의 탓에 치인 아버지
4. 결론

1. 서론

꾸이즈라는 신선한 작가의 작품 가운데와 우리나라의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의 작품 가운데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이 글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 아버지의 문제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처성자옥(妻城子獄)이라는 인간문제에서 감옥에 해당하는 자식의 존재가 초라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두 작가의 작품은 아버지의 형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4seasonduty@hanmail.net

상은 많이 다르다. 꾸이즈는 〈와청 허공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에서 3인칭 서술로 아버지인 리쓰의 행적을 따라가며 그의 독선과 그로 인한 불행을 그려낸다. 이에 비해 김소진 작품에서의 아버지 형상은 애증으로 점철되어있다.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과연 그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만나지는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광서성(廣西省) 羅城의 소수민족 무람족 출신인 작가 꾸이즈(鬼子)의 작품집 《鬼子悲憫三部曲》에 수록된 〈비에 젖은 강(被雨林濕的河)〉은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신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 위 작품집 가운데 두 번 째인 〈와청 허공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고 자부하는 시골의 아버지²⁾는 어떤 논리로 사고하며, 일방적 가치관의 강요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할 때 어떤 행태가 벌어지게 되는가를 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소설가 김소진³⁾의 각 작품에 일관되게 묘사된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 자괴감으로 연속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비교하면서 인간 사이에 소통이라는 주제는 어떤 양상을 띠며 과연 소통은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각 작품의 줄거리

꾸이즈 작품은 구조상 두 갈래로 나뉜다. 김소진의 작품 줄거리는 뒤로 미룬다. 이야기의 전말을 끌어내기에 앞서 화자인 소년이 도시빈민으로서 가난한 녀망

2) 꾸이즈(鬼子): 광시 루청인 중국 서북대 중문과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생계문제로 학업을 접었다. 1996년부터 창작시작, 인간의 진정성에 관한 작품을 주로 창작, 위에 언급한 대로 노신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에 《소설 선집》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노신문학상]을 수상했다. 본명과 출생 년은 미지이다. 작가 가운데 본명이나 이력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꾸이즈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듯 하다.

3) 김소진: (1963- 1997) 강원도 철원 출생. 서울대 영문과 졸업. 199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취잡기〉로 등단. 가장 큰 주제는 실향민 출신인 아버지의 무력한 형상에 마음 다친 청소년 시절을 지나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갈등하는 자아분열 시대적 불안 등을 주제로 자전적 작품을 발표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 글쓰기로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작가의 손실이라 여기는데 이 의견에는 많은 사람이 동감한다.

주이의 아들이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리쓰(李四)의 이야기는 3인칭 관찰자인 화자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일곱 살이 채 안 된 아이는 햇빛이 찬란했던 어느 날부터인가부터 엄마 없이 아버지와 산골에서 살게 된다. 아내가 도망 가버린 중늬은이 아버지는 학교에 입학한 소년을 단 사흘 만에 중퇴시킨 후 산골을 떠나 도시로 나갔고 가진 것 없는 그는 녀마주이로 살아간다.

자신의 환갑날을 잊은 자식들에게 심하게 분노한 리쓰가 자식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찾아갔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방문이유를 파악하지 못한다. 즉 성대하게 축하해야 할 아버지의 환갑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절망감에 싸인 리쓰는 도시의 공원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자신보다 훨씬 남루한 화자의 아버지를 만나 도시로 오게 된 연유를 털어놓았고 녀마주이인 화자 아버지에게서 위로와 환갑 축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들이닥친 자동차 사고로 화자의 아버지는 비명횡사했고 화장장에서 리쓰는 자기의 신분증을 화자 아버지의 유골함에 넣어버린다. 법률상으로 리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다. 더욱이 시골에 홀로 남아있던 리쓰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 받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상황은 꼬여가는 것이다. 화자는 자기아버지 죽음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화자의 집에 기거하게 된 리쓰의 입을 통해 자기아버지와 리쓰의 신분증 뒤바뀌는 과정에서 아버지 죽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그 후 화자아버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리쓰는 자식들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자신의 생존을 알리려 애를 쓰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자신이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릴 길이 없어진 리쓰는 결국 화자의 아버지가 횡액을 당했던 모습처럼 달리는 차에 몸을 던져 넣고 만다.⁴⁾

4) 화자의 아버지가 비명횡사한 것은 타의에 의한 목숨의 빼앗김이다. 반면에 리쓰는 자의적으로 자동차에 몸을 던진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둘의 죽음에 대한 양상은 자의와 타의라는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주체적 삶을 살아온 리쓰의 자의적 죽음과 아내의 출분 이후 리쓰와 형태는 다르지만 자식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는 화자의 아버지가 당한 타의적 죽음의 양상이 그것이다. 비록 두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인 트라우마는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삶의 모습이 달랐듯이 죽음을 맞는 상황도 주체적 선택과 수동적 피해라는 두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

김소진 작품에서의 아버지는 장편과 단편 70년대 서울 번두리였던 미아리 고개 너머 현재 길음동과 삼양동 일대의 도시빈민가를 공간적 배경으로 무력한 사내일 뿐인 무력한 실향민으로서 존재하는 형상이 대부분이다. 본 원고에서 옴니버스 형태로 그려진 장편 《장석조네 사람들》에서 간간히 얼굴을 비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단편집 《고아편 뽕덕어멈》 가운데 〈고아편 뽕덕어멈〉과 〈개 흘레꾼〉만을 비교작품으로 선택하였음을 밝히면서 각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장석조네 사람들》: 허름하지만 방을 여러 개 들여 세놓은 주인 이름이 장석조이다.⁵⁾ 죽 늘어선 방 모양이 기차를 연상시킨다하여 “열차집”으로 불린 이 집의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연작형태로 서술된다. 이 가운데 본 원고의 목적에 맞는 작품은 〈두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에서 보여 지는 아버지의 편린이다.

〈두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에서 화자인 아들의 손에 남은 아버지의 사진은 두 장이다. 그 중 한 장은 정식사진이라고 하기 뭐한 선거포스터에 새겨진 얼굴이다. 무능하고 초라한 아버지가 누군가의 사주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돈도 연줄도 없는 아버지의 상황을 잘 아는 가족과 주변이 극구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오직 원칙론만으로 선거에 임한다. 이미 효용가치 떨어진 상대방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처참한 실패를 짐작할 만도 하지만 포스터를 인쇄하던 처음과 마찬가지로 후보의 자세를 유지한다. 후보사퇴를 거절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딱할 뿐이다. 주변의 멸시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아버지는 원칙을 고집하는 이상향 열망자에 지나지 않을 터이며 아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초라한 아버지이다.

1995년 발표한 〈고아편 뽕덕어멈〉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수작(秀作)이다.

실향민으로서 궁색하고 무기력하게 살아 온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

는 장치라 할 것이다.

5) 그 집에는 아홉 가구가 난쟁이들처럼 울망줄망 모여 살아. 한 가구 한 가구가 마치 비둘기호 같은 기차 꼴을 이루고 있기에 동네에서는 모두 “기차집”이라고 불렀다. 그 소설적 공간 때문에 이야기도 토막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작가 서문부분 1995년 고려원

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타인의 범주는 아내와 자식까지를 포함하는 극히 협의의 상태까지를 이른다. 그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북에서 결혼한 고운 아내가 자리하고 있으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미쳐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헤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때마침 고운 아내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나타났다. 영터리 약장수들이 공연하는 “뽕덕어멈” 역할의 만만한 여인이다. 그 여인을 마음에 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북에 두고 온 고운아내와 몹시 닮았다는 점이다. 동네사람의 귀뜸으로 알게 된, 성적으로도 무능한 아버지가 무슨 일에서인지 약장수 여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 화자는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해 “뽕덕어멈”과 아버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한 얼마간의 돈을 아버지에게 건넨다. 아들의 속 깊은 행동을 효심이라 칭송하는 뽕덕어멈 역할의 여인에게 모진 말을 던진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약장수들이 뿌렸던 인쇄물에 <고아편 최옥분>이라 고쳐 쓴 남루한 종이를 남몰래 간직했고 그 남루한 종이를 뒤늦게 발견한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며 가슴으로 화해한다.

마지막으로 <개 흘레꾼>이다. 아버지의 소일거리는 보수도 없이 동네에 수없이 키워지는 개를 교미를 시켜 주는 일이었다. 모든 사람이 내 아버지의 행위에 고개를 내 젓는다. 더욱이 명문대생인 화자의 거부감과 부끄러움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천륜조차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는 오래 전 남한의 포로수용소서 당한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폭압적인 수용소 내에서 남의 돈조차 꼼꼼히 간수하던 아버지를 겁박해 보관하는 돈을 빼앗으려는 집단이 마지막 위협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 커다란 세퍼드였고 그때의 정신적 상처는 아버지를 평생 따라다닌다. 결국 미아리 너머 산동네에서의 삶에서 아버지는 두려웠던 개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개를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일이었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일말의 위안제였기 때문에 주변의 손가락질을 무시한 채 수고비도 받지 않으면서 도맡아 동네 개의 번식을 주재한다. 화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초라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

1) 리쓰의 타인 허용

도시 빈민인 화자는 자신이 도시로 오게 된 경위, 현재 처해진 상황 등을 간단히 리쓰에게 설명한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전혀 낯선 도시로 끼어들게 된 자신의 이주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아버지와 녀마주이 소굴에 살게 된 현상만을 밝힐 뿐이다.

아버지는 아내를 찾아 도시로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을 도시인으로 만들기 위해 와청으로 온 것이며 그 목적은 자식에게 가난한 삶을 물려주기 싫어서였다. 남편과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 아내의 상대가 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근본적 이유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소년에게 항상 남아있던 '아버지는 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했는가' 라는 의문도 풀린다. 산골에 사는 사람은 설명 공부를 했더라도 결국은 모두 도시로 가 버린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으니 일찌감치 돈 벌러 도시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었다. 아내의 가출은 가난한 산골 사내에게는 엄청난 상처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후라이청(胡來城)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다.⁶⁾ 하지만 그 이름이 타인에게서 불리운 흔적은 없다. 즉 화자의 새 이름과 리쓰의 보리밭은 동일한 맥락에서 허망한 상징이라 할 것이다.⁷⁾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리쓰지만 생각지 못하게 닥친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누군가는 자신의 테두리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자신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낯선 도시에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도구로 발탁된 존재가 화자였고 이 소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상의 교감을 나눌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의지나 논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리쓰는 마지못해 타인의 틈입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⁸⁾

6) 이름을 보자. 성(姓)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라이청(來城)은 도시로 나온다는 뜻이다. 산골을 떠나는 이유가 소년의 새로운 작명에서 아버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7) 뒤에 꾸이즈 작품의 개요를 설명하겠으나, 제목에서 암시하듯 산골사람인 리쓰에게 넓은 보리밭은 풍요를 상징한다. 즉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도시인을 만든 리쓰에게 허공에 있는 풍요한 보리밭인 셈이다.

8) 줄거리에서 언급한대로 리쓰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화자의 아버지 신

김소진이 그려 낸 아버지는 리쓰와 같은 소동이나 분노는 드러내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남루한 삶 역시 전쟁에 따른 이산(離散)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고 그것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인식한 때문인지 타인의 틈입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리쓰의 자식 교화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타인 허용,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소란과 김소진 아버지의 침잠은 간단한 대비로 공식화시키기는 어렵다. 《장석조네 사람들》과 〈고아뎨 뺨덕어멈〉에 거듭 언급되는 부자관계는 달라질 것이 없다. 아버지 된 자가 해야 할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무력함에 말할 수없는 자괴감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리쓰가 드러낸 당당한 분노의 감정은 없다. 몇 번의 사업실패에 결국은 불고가사(不顧家事)의 상황에 몰리니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아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자식은 공부를 잘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입학한다. 이런 점이 아버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자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눅 든 아버지에게 가슴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인 ‘타인허용’이라는 개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리쓰의 왜곡된 자존심

리쓰는 자식 셋을 도시로 들여보낸 자랑스러운 산골사람으로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대단한 일을 해 냈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갑날은 남보다 훨씬 특별한 날이어야 한다고 여긴다.⁹⁾ 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키워 도시로 보낸 자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아버지의 생일, 더욱이 환갑날을 모두 다 잊었다는 사실이다.

리쓰는 분노해 도시로 달려간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껄뻘한 마음

분으로 변화한 나머지 내키지 않지만 화자와 동거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그의 타인 허용은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음 의미한다.

6). 자식의 작명 원칙은 이렇다. 반드시 진입시키고 싶은 도시인 와청에서 따와 큰아들은 “와(瓦)”, 둘째 아들은 “청(城)”이라 붙였다. 리쓰의 도시에 대한 집착은 이렇듯 자식들의 작명(作名)에서도 드러난다. 맹목적인 도시로의 분출은 그 출발이 산골의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으로 자식을 찾아갔으나 자신의 숙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방이 알아채기를 바라고 있는 그의 방문목적은 아는 자식은 아무도 없다. 하늘이 분노할 짓을 저지른 자식들에게 그들의 과오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리쓰는 분노와 실망의 심정으로 대해 보복을 계획 한다¹⁰⁾.

환갑을 기념할 술 단지를 둘러메고 와청 시내의 자식들에게 쳐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단단히 챙겨 나간다.¹¹⁾ 처음 찾아갔던 큰아들의 집에서 리쓰는 사업에 바빠 부재중인 맏아들의 얼굴도 못 본 채 나왔다. 술항아리 메고 걸음을 옮긴 곳은 딸의 집이었지만 여기서도 아버지를 환대하는 기색은 없다. “어쩐 일이세요?!” 딸 리시양은 의외라는 심정을 감추지 않은 질문으로 리쓰의 가슴에 또 한 개의 상처를 안겨준다. 빈집에서 텔레비전을 켜주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융숭한 접대인양 여기는 딸의 집을 나온 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막내아들이다.

리쓰는 거리에서 여자 친구와 손잡고 걸어가는 막내 리청(李城)을 만난다. 막내의 반응은 ‘아버지가 여기는 웬 일이세요?’이다. 귀찮은 노인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에 대한 짜증이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모습을 기대한 리쓰가 자식들에게는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탐입자의 신세에 다름 아닌 존재로 환치되는 것이다.

리쓰는 줄지에 고아가 돼버린 ‘나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면서 나의 아버지로 신분이 바뀐 후 자식들의 집을 몰래 찾아든다. 나의 묘한 기술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리려 현재 상황으로는 엄연히 남남인 자식들의 집을 드나들며 그들을 괴롭힌다. 상대방에게 연유를 설명할만한 아량 따위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리쓰이기

10) 줄거리에서 언급했듯 리쓰의 신분증 바뀌치기한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자식들의 집을 몰래 드나드는 소동은 2010년 다소 늦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1936-)의 《미라플로레스에서 생긴 일》(신판 제목 《나는 홀리오 아주머니와 결혼했다》)에서 등장인물들의 어지러운 소동을 보는 듯하다. 꾸이즈의 상기 작품에서 보이는 리쓰의 형태가 독재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바르가스 요사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11) 신분증은 중요한 모티프이다. 거주의 자유가 쉽지 않았던 8, 90년대 공간이동에서 신분증은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 그러나 리쓰가 지니고 간 신분증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공중에 떠있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즉 구름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말 구름마냥 그의 목숨도 신분증을 단단히 챙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흩어지고 만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자신이 고안해 낸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나름대로 유지해 온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나머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다 너희를 위한 교육이다, 남에게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부모는 모름지기 다 나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경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상호교류라는 개념을 전혀 모른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식 된 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식의 관념만을 주장할 뿐이어서 타인의 질문 등은 끼어 들 여지가 없다. 오로지 상명하복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주변에 흔히 보이는 가부장의 관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통이 어려운 인간형은 아무리 공들여 설명해도 다 듣고 난 후 “...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처음과 마찬가지로의 말과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¹²⁾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존심의 대가인 리쓰가 바로 이런 유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가장 초라한 지경에 내던져진 소통불능의 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에 비해 김소진의 아버지는 여간해 자기의 의견이나 계획 등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서 타인과의 맞섬이나 자존심 대립 등의 갈등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민주화 운동으로 검거된 아들을 비난하는 외부인에게 격렬히 맞서는 아버로서의 자존심은 굳건히 유지한다.¹³⁾

3) 이야기의 공식

공식: 리쓰가 벌이는 일련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째: 자신의 고단한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 자식들을 도시로 내 보냈다. 남들은 그의 노력을 칭송했고 그는 자랑스러웠다.

둘 째: 힘껏 노력해 자식들을 도시인으로 만들었건만 다른 날도 아닌 환갑날

12) 리쓰가 거들 자식들에게 분노하듯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유형과 자주 부딪친다.

13) “기래두 대학물 먹은 아이들이 뭘 좀 아니깐 그 지랄 떠는 거 아닐까 하는 이치도 짐작해봐 야지.” 아버지와, 아들을 비난하는 동네아저씨와의 언쟁에서 이런 측면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고아면 뺨덕어멈> 앞의 책 70쪽.

셋이나 되는 자식 누구하나 기억해 찾아오지 않았다. 일찌감치 축하주까지 준비하고 새벽부터 기다리던 주인공 리쓰는 껄뽀한 자식들을 혼내주기 위해 도시로 달려간다.

셋째: 자식들이 잘 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환갑을 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리쓰는 자식들을 찾아가지만 아버지 환갑도 잊은 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식들로서는 아버지의 방문이 생경하다. 방문 목적을 발설하지 않는 아버지와 분주히 사는 자식들은 성의도 없고 환대도 없으며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아닌 채 무성의하게 조우를 마친다.

김소진이 그린 아버지 역시 공식을 살펴보자.

첫째: 화자인 나의 아버지는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이점은 가족들의 경멸과 아버지의 무력감을 동시에 드러내 보인다.

둘째: 남에게 사랑할 만 한 점 없는 남루함이 그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비록 시대적으로 어려웠고 대부분이 가난한 서울 변두리 산동네의 인간군상이 비교대상작품의 근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언제나 가장 뒤로 밀리는 남루한 형상이 화자가 그려낸 아버지이다.

셋째: 자괴감에서 비롯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드러내듯 화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한 요구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욕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버지로서의 기능이나 현실적 권위로 본다면 리쓰가 김소진 작품에서의 아버지보다 훨씬 힘 있는 존재다.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는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시로 내 보내는 억척스러운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 소홀했을 때 분노하며 도시로 자식들을 찾아가는 서슬 퍼런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실향민으로서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소진의 아버지상에는 무능함과 자괴감으로 얼룩진 힘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소진의 아버지는 비록 생전에는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무능한 모습이었지만 죽은 후 아들에게서 뒤늦게라도 이해받는 존재이다. 이것이 꾸이즈와 전혀 다른

공식이다.¹⁴⁾

3. 초라한 아버지

도리를 망각한 자식들에게 아버로서의 교훈을 놓치지 않으려는 리쓰는 직접 찾아가 자식들의 불효를 일깨우려한다. 그가 어떤 양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살펴보자.

아울러 언제나 허름하고 초라하기만 한 김소진 작품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논리를 가진 인물이기에 남루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민망한 아버지로 살아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공통점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점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진입하기 어려운 와청으로 셋이나 되는 자식을 보낸 리쓰. 그는 당당할 수 있다. 반면에 아버로서 자식들에게 해준 것 없는 김소진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 제 힘으로 합격한 아들을 두고 있다. 타인의 칭송, 더욱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왔던 어머니의 당당한 자랑 앞에서 아버지는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1) 분노의 바탕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리쓰는 매년 생일마다 한 단지씩 술을 담가왔는데 이번 술은 환갑을 기념해 비싼 흑미로 더욱 공들여 담갔다. 그런데 자식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기념일을 잊었다. 그래서 바로 그 술 단지를 들고 자식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리쓰의 의도는 자식들 길들이기이다. 하지만 자식들로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문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¹⁵⁾

14) “..어머니가 보기엔 도대체 아버진 어떤 사람이었어요? ”.. “글쎄, 능력이 없어 처자식 고생은 꽤나 시킨 양반이었지만, 땀씨만 갖고 따진다면야 아주 맑고 고운 양반이라고나 할까.” 김진석: *고아편 뺨덕어멈*》해제부분(개같이 죽는 인간, 개같이 살아나는 소설) 앞의 책 242쪽.

그는 독재자로 인생을 살아냈다. 16) 따라서 리쓰의 길 떠남은 불화 이전에도 일방적 사고에 자신의 환갑날을 자식들이 잊은 것에 대한 분노의 이중적 표출이다.¹⁷⁾

리쓰는 도시로 향하며 아내에게 일차 분노를 덜어낸 후 자기 신분증을 찾아냈다. 그는 독재관념을 매사에 해결의 근거로 삼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내의 만류 따위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 리쓰의 척도로 볼 때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자식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김소진의 아버지상은 리쓰와 전혀 다르다.

화자의 아버지는 분노를 드러내는 일이 없다. 그 바탕은 자책과 자괴감이다. 아버로서 그는 가족들에게 '해 준 것'이 없다. 특히 명문대생인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며 주눅 든 초라함만을 보인다. 그렇다면 자괴감의 바탕은 무엇인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념이라는 거대한 장벽에서¹⁸⁾ 그의 분노의 근간은 개인적 상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제에 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길은 스스로에게 분노하거나 자괴감에 빠질지언정 가족이나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없이 체념과 무력함이다.

2) 근엄한 독재자의 자식 찾기

15) 바진(巴金)의 《집(家)》을 보면 "주인공 웨후이(覺慧)는 전형적인 유교 가정에서 성장한다. 가정의 구성원은 각자 명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통도덕 예교, 온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적 가정에 대한 절대 복종, 가족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 집안 분위기"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리쓰는 전형적 가장이라 하겠다. 그는 바진이 역설한 관념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살아온 인물이므로 자식들의 불효를 용납할 이유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바진(巴金), 혁명과 문학의 아나키스트》 박난영 지음 한울 아카데미 서울 267-268쪽.

16) 리쓰로서는 자신이 법이다. 그러니 가족 모두가 따라야 할 뿐이다. 특히 앞의 책 75-76을 보면 자신의 법을 따르지 않은 자식들 태도에 대해 아내에게 악다구니를 퍼붓는다. 이 대화가 분노의 바탕인 셈이다. 鬼子: 〈와칭 허공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春風文藝出版社.

17)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리쓰의 초라한 아버지 형상이 시작된다고 하겠다.

18) 아버지는 월남할 당시 상황을 가끔 언급한다. 반드시 지켜주었어야 할 것먹이를 두고 열걸에 헤어져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자신의 지난날의 회상을 통해 초라한 인생의 근간을 발설한다. 특별히 〈고아면 뺨터어멈〉과 〈개 흘레꾼〉에서 심정적 아픔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와청에 도착했으나 자식들은 아버지의 환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닷없는 아버지의 출현은 자기들 일상에서 거추장스러운 틈입에 불과할 수 있지만 리쓰의 생각은 다르다. 자식이 아버지의 환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또한 자식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별일 아니다. 큰아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다. 도시인으로 바쁘기 때문이다.¹⁹⁾

다른 자식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버지를 반기지 않는다.

당연히 기억할 줄 알았던 딸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 잘 살기 위해 빛까지 낸 딸의 처지로는 가장 급한 일이 돈 버는 일이라 비록 친정아버지 환갑날도 망각할 수도 있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리쓰로서는 더욱이 딸이 “그럴 수”는 없는 결코 없는 막돼먹은 태도인 것이다. 그는 상처를 하나 더 추가한 채 돌아선다. 막내아들은 가장 버릇없이 아버지의 느닷없는 출현에 싫은 내색을 감추지 않는다. 아무리 막내라는 프리미엄을 얹어주더라도 섭섭하고 껄뽀한 심정은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막내도 자기의 상황이 있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려던 계획이 무산된 판에 초라한 산골 노인의 급습이 반가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상처가 더욱 불어난다.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던 술 단지는 열어 볼 기회를 놓친 채 리쓰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에게서 자식들 상황에 대한 이해나 아량은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근엄하고 권위만을 주장한 리쓰의 실상과 맞닥뜨리게 된다.²⁰⁾

최소한 얼굴을 마주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거라 여겼던 리쓰의 자식 방문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환갑날이 씩씩했던 것처럼 자식 길들이기가 무의미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리쓰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오직 분노만을 표출한다. 화자인 나와 이상한 형태로 동거하게 된 시기는 세 자녀 모두 리쓰의 환갑

19) “아버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대? 몰라요.. 당신이 아버지 모시고 이리로 와... 안 가신대요..당신도 들었지요? 안 가신대요..... 아버지 뭐 잡숫고 싶으신지, 요리 몇 가지 사와서 잡수시라고 드려...아버님 뭐 잡수실래요? 나 안 먹는다. ... 좀 쉬다 네 시누이 집에 갈 거다. 이 한마디에 시에샤오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럼 아버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앞의 책, 80-81쪽. -번역은 필자의 완역원고를 참조했음.

20) 《나와 아버지》 엔렌커의 가족 이야기 중 아버지 부분과 비교하면 리쓰의 일방적 폭력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을 기억하지 못한 당일이다. 우리아버지의 온정으로 어느 정도 아픈 마음을 추스렸지만 바로 다음날 우리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하루 동안의 인정에 대한 의리로 우리아버지의 유골과 신분증은 리쓰에 의해 수습됐다. 우리아버지조차 리쓰의 소동에 휘말리고 만 것이다.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후 분노해 찾아 간 자식들의 푸대접은 아내에게 그리도 당당하고 근엄하며 남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독재자의 현주소를 의미한다. 즉 그는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산골의 노인에 불과하고 외면하고 싶은 자식들의 불효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쉽사리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리쓰가 당면한 현실이다. 그는 혼자만의 독재자로 살아왔던 것이다.

반면에 어떤 주장도 곁으로 내세운 일이 없는 김소진 작품의 아버지는 어떠한가.

화자의 아버지는 좀체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인물이다. 허술하고 남루한 인생을 끌어내가기 때문에 무능한 아버지이기에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은 오롯이 어머니에게 전가돼 버린 집안이다. 현실적으로 처자식을 건사하지 못하는 화자의 아버지는 아무 주장도 없어 보이는 무능한 남자 그 이상이 아닌 불쌍한 존재로 고정되어있다. 타인의 눈에 자존심을 지닌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초라한 아버지는 본디 자기책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아내의 꾸밈과 자식의 불만을 묵묵히 참아낸다. 즉 김소진 작품에서의 아버지란 속을 알 길 없는 사내이며 현실적으로 변듯하지 못한 존재이다. 그에게서 근엄함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자인하는 아버지는 리쓰와 다르게 독재자의 면모나 논리주장은 결코 드러내지 않는 수동적 존재이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하는 일을 자신의 중요 임무인양 절대 양보하지 않는 무언(無言)의 독재를 유지하기도 한다.

3) 처성자옥(妻城子獄)의 개념을 외면한 남편의 형상.

리쓰는 우리아버지의 유골함을 딸의 집 앞에 던져 놓았다. 당연히 자식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났다고 굳게 믿으면서 장례를 치르러 산골로 왔다. 리쓰의 아내는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찾아갔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무심함을 질타한다. 아버지의 분노원인과 경위 설명으로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나 용서의 갈구, 자신들에 대한 자책 등을 이끌어내지만 어떤 반성으로도 리쓰 아내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자식들의 처지에서 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유골을 담은 상자위에 놓인 신분증이 명확한 증거다. 그래서 유골상자를 들고 고향으로 향했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채 살았고 남편에게서 살가운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던 리쓰의 아내지만 남편 없는 세상은 하늘이 무너진 것이기에 리쓰의 아내는 애통하며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만다.²¹⁾ 리쓰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실을 알 리 없는 자식들로서는 졸지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버리는 바람에 부모님을 다 잃은 후 자신들이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책임전가 현상은 이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²²⁾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하며 혼자 떠맡을 자식은 또 없다. 더욱이 도시의 뻘뻘한 생활에서 산골의 정서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²³⁾ 어쨌든 그들의 부모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산골에 빈집을 돌 필요가 없어 집은 매각된다. 이것은 리쓰에게 정신적 물질적 울타리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쓰는 자신의 속내를 가족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화가 치밀면 아

21) 리쓰 아내의 죽음은 가상이 아닌 실제상황이다. 자식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22) "엄마는 만팔이면서 어떻게 할아버지 생신을 잊을 수가 있어요?"라는 손녀딸을 질책으로 시작되는데 자식들의 자기주장의 형태는 리쓰의 일방성과 몹시 닮았음을 읽어낼 수 있다. 꾸이즈 앞의 책, 113-116쪽.

23) 도시인의 삶과 시골에 남아 과거의 삶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류진운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래 고향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기뻐해야 할 일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사람을 만나 옛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될 것도 없다.집에 손님이 오면 접대하지 않을 수 없다.... 손님이 자주 오면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다..... 이 단락에서 도시인의 빠듯한 삶과 공동체 정서가 농후한 고향사람과의 정서적 괴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리쓰가 고향사람의 전형을 대표하는 인물형상이라면 류진운 작품의 임(林)이 처해있는 도시에서의 뻘뻘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환감조차 잊어버린 채 분노한 아버지가 시작한 소동에 휘말리는 리쓰의 세 남매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닭털 같은 나날》 38쪽. 류진운 소설집 《닭털 같은 나날》 김영철 옮김 도서출판 소나무 2004년.

내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분노를 발산해왔다. 모든 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막무가내의 행위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 하겠다.²⁴⁾ 그는 가장으로서, 남자라는 권위로서 자기 이외의 인격에 대해서는 애초에 단 한 차례도 생각 못해 본 독불장군인데 이런 쾌락에 가까운 독선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아내”를 믿는 일종의 응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형상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흔하며 자신들의 행위로 주변의 많은 인물이 심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일쑤이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내라는 존재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오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처성자옥’이라는 엄숙한 관념을 망각하고 산다.

김소진의 아버지형상에서 처성자옥의 양상을 따져볼 차례이다.

화자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후줄근한 형상으로 굳어져있다. 낡은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의무지만 김소진의 아버지들은 그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연히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원래 부잣집 딸이었던 어머니에게 넘겨진다. 삶에 지친 사람들의 입에서는 꾸밈이 벗을 때가 없다. 화자어머니의 입에 달린 편견과 무관심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아버지는 처성자옥의 관념을 상실한 존재로 비치기도 한다. 김소진의 아버지들 역시 울타리로서의 아내라는 공식은 있겠지만 이 경우 리쓰에게서 보이는 ‘믿는 구석’을 전제로 한 횡포는 저지르지 않는다. 리쓰와 달리 화자의 아버지는 늘 감옥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괴심에 아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채 추레한 모습만을 보인다. 즉 김소진의 아버지는 민망하게도 언제나 울타리에게 빚지고 있으며 감옥에 해당하는 자식에게는 미안하고 염치없는 심정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식의 원칙에 함몰돼 ‘처성자옥’의 관념을 상실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남을 뿐이다.²⁵⁾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들인 화자는 시

24) 처성자옥(妻城子獄): 일반적으로 아내(또는 남편)는 울타리가 되지만 자식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5) 내게 아버지란 존재는 이도저도 아닌 개흠레꾼에 불과했다. <개흠레꾼> 앞의 책 241쪽. 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었던 것이다. <고아편 뺨덕어멈 > 앞의 책 43쪽.

간이 지난 후 아버지의 인간적 면모를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언뜻언뜻 보이는 아들에 대한 애달픈 사랑표현에서 당시로서는 소통할 수 없었던 외적인 부끄러움이 자식의 성장 이후 소위 '철이 들면서' 뒤늦은 소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소통불능의 뒷에 치인 아버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나름의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있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기 위해 리쓰는 자식들 집을 몰래 드나들며 흔적을 남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실책은 리쓰가 자식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리쓰로서는 명분이 있다, 부모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식들의 버릇없음을 징벌하겠다는 의도이다.²⁶⁾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던 날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본인들의 무심함을 회개했다. 그래서 아버지께 뒤늦게라도 마지막 예의는 지켜드리고 있다. 그런 딸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고약한 짓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분명히 잠그고 나간 집의 현관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대두된다. 상호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틀림없는 폭력이다. 리쓰에게는 여전히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관념은 없고 오로지 '도리'라는 패착에 휩싸인 폭력만 있을 뿐이다.

리쓰에게 자식 길들이기란 자신이 아는 한 이 방법뿐이다. 화자에게서 잠긴 문 열기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계속하는 리쓰의 목적은 단

26) 이런 리쓰의 고집은 건축가 승효상이 쓴 《노무현의 무덤 — 스스로 추방된 자들의 풍경》이라는 책제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물론 꾸이즈 작품의 주인공과 승효상이 분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는 리쓰는 스스로를 보편적 사고에서 추방시켜서라도 자식들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강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작품의 주인공과 실재했던 인물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언어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승효상의 주장을 옮겨본다. "... 내가 아는 한 노무현은 우리 사회에 생소한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가 기성 사회에 진입한 것도 보편적 방법이 아니었으면, 그가 획득한 포지션으로 사회의 어느 기득권자 마냥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곧 마다하였고, 그는 늘 경계 밖으로 자신을 내몰았다. 그리고 경계안의 사람들을 향해 질타했다." 승효상의 책 7쪽에 해당(이 책은 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나이다. 즉 자식들에게 최소한 그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fact)’를 알리려는 것이다.²⁷⁾

리쓰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진정은 자식들을 와청, 즉 산골 두더지가 아닌 세련된 도시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완성되던 날 찾아갔던 성문에서의 독백에서 절실하게 드러난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갑날 자식들의 무관심을 나무라는 리쓰의 주장은 간단하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희가 내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이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식들을 도시로 보냈다.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백골 난망”으로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며 무엇에도 최우선시 되는 가치관이어야 한다. 그는 평생을 산골에서 살아왔으므로 산 속의 가치관만 알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한 편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도시사람으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한다. 리쓰의 딜레마는 각 개인의 차이라는 단순할 수 있는 문제에 오로지 자신의 철학이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고의 고착으로 인해 환갑날 이후의 행동이 스스로 자초한 “뒤틀”이었음을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주인공의 이름을 생각해 보자, 리쓰의 쓰는 넷(四)이다. 죽는다는 뜻도 쓰(死)이다. 이 작품을 읽다보면 그의 이름조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인정할 수 없는 소통불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비극은 표현의 빈곤에서 기인

27) 그들에게 행운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멀쩡한 하늘이 흐려졌고 태양 빛은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 구름에 갇혔던 태양은 다시 찬란한 빛을 내 뿜겠지만 그 빛은 엄마가 달아나 버린 어린아이의 당시와 미래에 별 다른 희망이 되지 못하듯 밝음을 상징하는 좋은 소식은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리쓰와 줄지에 고아가된 ‘나’만 남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28) 아저씨가 다다른 곳은 까마득히 높이 솟은 성벽이었다. 거기는 구 시가지로 오래 전에 세워진 성벽이라 사람들은 구남면(古南門)이라고 칭했다...전에도 한 이십 년은 됐지. 제일 처음에 온 것은 리시앙을 시내로 들여보낸 그 날이었단다. 처음 여기 온 날. 내가 여기서 뭐했는지 아니? ... 왜냐하면 와청은 내가 마음속에서 줄곧 바라던 곳이었단다. 난 일찌감치 우리 새끼 셋을 하나하나 모두 와청 도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 아직 애들이 어렸었거든...난 단지 그 애들이 도시사람이 되기만 바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구름이 보리밭으로 변하는 거야. 훌러훌러 산골에서 시내로 들어가더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남들이 모두 부러워했어... 나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니? 이 고백이 리쓰로서는 유일하게 타인에게 표출한 자신의 속내일 것이다. 꾸이즈 앞의 책. 152- 155쪽.

한다. 꾸난면에 홀로 앉아 흐뭇하고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구름이 결론적으로는 리쓰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리쓰가 미처 깨닫지 못한 구름의 이중성은 비가 될 수도 있지만 그의 꿈을 짓밟아버린 밝음의 반대개념을 알지 못했고 이와 같은 자기세계 함몰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리쓰는 자식과의 '상봉'에 실패한 채 '이별'만을 맛보고 만다. 자식들은 자기아버지에 대해 어떤 해석이나 평가를 내릴 기회조차 없다. 따라서 리쓰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유형인 것이다.

이에 비해 김소진의 아버지들은 초라한 형상임에도 불편하지 않은 결말을 만나게 된다. 그 바탕에는 나이를 먹어가는 화자와 아버지 사이에 "이해와 소통"이라는 다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자의적이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주장하여 리쓰처럼 과묵으로 치닫는 불행의 초래는 보이지 않는다. 즉 김소진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던 때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거부한 아들이 아버지를 냉정히 바라보기 시작해 비록 사후이지만 부자는 긍정적 상봉을 이룬다. 거기에는 한국동란이라는 사회적 특수성과 변수, 즉 역사 속에서 아버지를 아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 그들 부자의 상봉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자식들을 모두 와청으로 보냈던 날, 리쓰는 꾸난면 넘어 높은 둔대에 올라 하늘을 쳐다봤다. 그동안 산 속에서 명청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과 달리 좋은 삶을 영위할 조건을 자식들에게 안겨 준 기념이었다. 그가 응시한 곳, 구름이 떠가는 하늘, 그 청명한 하늘을 가득 메운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가 가득 심겨진 속 든든한 밭이었다. 그러나 자식을 배부르게 만들어줄 것이라 여긴 보리밭은 리쓰의 마음만 넉넉히 만들어줄 뿐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감개와 노고만을 주장하는 리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애초부터 없는 소통불능의 불행한 형상이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다. 모두에게 공통된 이 조건을 해석하는데 있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자식이나 타인의 눈에 비쳐진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그런데 꾸이즈의 작품에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봉별기〉는 우리의 관념과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 자신들이 아버지인 자신의 환갑을 망각했다는 분노를 근거로 행해진 자식 길들이기 작전으로 개별적 만남은 있었지만 살아있음에도 죽은 자로 간주된 리쓰가 희망하는 완벽한 상봉은 없고 안쓰러운 스침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극적 희극인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과연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이해는 원활한 가를 꾸이즈는 독자에게 묻고 있다고 본다.

리쓰는 아버지라는 관념을 과거의 인식으로 해석하려는 자기세계의 집착으로 인해 자식들이 자신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호령을 이어갈 뿐이다. 따라서 리쓰는 남루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김소진의 일련의 작품에서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바로 이점이 꾸이즈가 그려 낸 리쓰라는, 태생적 불행을 내포한 형상이라 하겠다. 즉 그는 소통의 기능을 갖지 못한 불행한 존재이다.

이에 반해 비록 겉보기 남루한 김소진의 아버지 형상은 “처성자옥(妻城子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자괴감에 고개 숙인 채 자신의 세계로 도피하고 만다. 다행히 일찌감치 지아비나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던져버린 가족들의 체념 덕분에 리쓰의 경우에서와 같은 악착스러운 상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고 결국 그의 삶에 대한 총평은 아내와 아들에게서 받은 이해다. 아버지라는 벗어버릴 수 없는 멍에를 둘러 쓴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함구함으로서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현재 가족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여긴 형상인 것이다. 즉 겉보기에 초라해도 사후에 존재의 바탕에 대해서는 긍정을 이끌어낸 김소진의 아버지와 리쓰의 차별성은 바로 이 점에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전 손택(Susan Sontag, 1933-2004. 미국)은 일찍이 60년대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저에서 ‘해석이라는 행위를 호전적’이라 설파했다. ‘호전성’은 평론에서 적극적이라며 평론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²⁹⁾ 이처럼 두려울 정도로 책임감

을 강조한 손택 여사의 격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 작품을 해석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소통부재의 비극은 결국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자식을 잘 키우려는 보편적 의도가 자기세계에 갇히면서 얼마나 불행해 질 수 있는가, 남 보기에 떳떳한 아버지의 실상은 어떤가 등을 리쓰라는 주인공을 통해 뛰어난 이야기꾼인 꾸이즈와 김소진의 작품에서 찾아본 것이다.

《參考文獻》

- (鬼子) <와청 허공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春風文藝出版社 沈陽. 2004.
김소진 《고아뎐 뽕덕어멈》 도서출판 솔 1995.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고려원 1995.
류진운 작품집 《닭털 같은 나날》 김영철 옮김 도서출판 소나무 서울 2004
승효상 《노무현의 무덤 --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 도서출판 놀와 2010. 9월.
수전 손택 《해석에 반대 한다》 이민아 옮김 도서출판 이후 2009년 제 5쇄.
엔렌커(閻連科) 《나와 아버지》 김태성 옮김. 자음과 모음 2011. 6월.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최현정 옮김 도서출판 플래넷 2007.
기타. 컬럼: 2007년 4월 <오마이뉴스>2007년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개잡이”아버지의 피 묻은 손> - 김소진 10주기- 그에게서 공정을 배우다. 박상규기자의 글 전문.

《中文提要》

本论文的主要内容：第一是父亲的形象，第二是与孩子们互相沟通色问题。父

29) 수전 손택 [해석에 반대 한다] 가운데에서 주장 한다: 해석의 임무는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번역 작업이다. 앞의 책 22쪽. 또 (그러나) 해석은 예술작품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잔인한 호전적 행위로 보인다. ... 해석의 이 호전성은 다른 예술작품을 잔인한 호전 행위로 장르보다 문학에서 한층 더 극성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문학 평론들은 시나 희곡, 또는 장편이나 단편소설의 요소를 다른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왔다. 26쪽. 이민아 옮김 도서 출판 이후.

亲则是辛辛苦苦养孩子。对他来讲,他的目的和欲望比孩子的幸福更幸福。他之所以能克服困难,是因为他爱孩子们。本人通过鬼子的《瓦城上空的麦田》找出父亲的形象。读到鬼子的《瓦城上空的麦田》,你会触摸到真实来源于生活的真实感受,生活的真实来源于生活真实的细节。作者对可怜天下父母心的血肉之情的刻画是那么地细致,那么地感人,那么有深度,使“父亲”这一形象跃然纸上。作为父母的最大的心愿,就是要让孩子出人头地,尤其是那些穷乡僻壤的农民更为迫切,砸锅卖铁,也要供孩子读书上大学。四个孩子整天忙着自己的事情,一年到头回不来几次,开始还找个理由,后来就连理由也懒得找了,更不用说记住今天是父亲的生日,赶回去为老爹祝六十大寿。

鬼子的小说《瓦城上空的麦田》描写了三类进城的乡下人,这三类乡下人进城后都没能完美的实现他们的城市梦,他们或是被城市伤得体无完肤,或是成为城市边缘人、在城市中艰难求生,或是被城市异化,在现代理性之下失去了自己的主体性。

《瓦城上空的麦田》在城市与乡村的现时悖论中显现出自己的价值,即揭示了乡里人走向城市时的艰难历程。鬼子的《瓦城上空的麦田》无疑把这种尴尬推到了极致,生死两茫茫的游荡者再也找不到自己从前赖以生存的麦田和坚守的信条,找不到自己底气十足的那种自信,他的灵魂在一座陌生的城市上空,莫名其妙地飘来荡去,失去了自我,失去了一切。本人选定韩国著名作家金昭晋长篇小说[Jang Seok Jo's eole], [The once retty Bbangduk's mother]], <A man arranging coulation of dogs>,三本小说里的父亲形象与《瓦城上空的麦田》的父亲形象进行比较研究。与鬼子的作品里面的‘父亲形象’比起来,金昭晋和鬼子的小说,作者都表达了可怜天下父母心的血肉之情。

關鍵詞：李四 瓦城 沟通 一方的主张 致死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